

# 글로벌 혁신의 핵심거점으로 발돋움하는 중국 상하이

홍성범 한국·상하이글로벌혁신센터장 sbhong@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국의 5000년 역사를 보려면 허난성으로, 3000년 역사를 보려면 시안으로, 1000년 역사를 보려면 베이징으로, 100년 역사를 보려면 상하이로 가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상하이는 중국의 현대 역사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도시라 할 수 있다. 송나라 당시 진(鎭, 한국의 행정구역 단위로는 ‘면’에 해당함)에 불과했던 상하이가 역사의 주역으로 부상하게 된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아편전쟁의 패배였다. 1842년 체결된 난징조약에 따라 중국의 5대 통상항구가 대외 개방되었고 1843년 11월부터 상하이도 정식 개항하게 되었다. 외세에 의한 굴욕적 개방이었으나 경제 번영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일궈으로써 1927년 상하이는 시로 승격되었고, 이후 ‘동방의 진주’ 또는 ‘동방의 파리’로 묘사되면서 어엿한 현대도시로 발돋움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에는 정치 수도인 베이징과 경쟁하면서 중국의 경제수도 역할을 맡아왔다. 현재 상하이는 시진핑 정부가 제시한 ‘글로벌 혁신센터’라는 새로운 비전을 이루기 위해 또 다른 전환점에 서 있다.

## 1 | 상하이와 장쩌민 그리고 시진핑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지만, 한국의 언론들은 중국 내 정치권력을 태자당(太子黨)·상하이방(上海幫)·공청단파(共靑團派)로 구분한다.<sup>1</sup> 그 중 상하이방을 이끈 장쩌민은 상하이 인근 지역인 장쑤성(江蘇省) 양저우(揚州)에서 태어나 상하이교통(上海交通)대학 전기학과를 졸업한 인물이다. 이후 여러 공장현장 엔지니어와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전자공업 부장, 상하이 시장, 상하이 당서기를

**1** 태자당은 중국 당·정·군·재계 고위층 인사들의 자녀를 일컫는 말로, 각계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대표적 인사는 시진핑 주석이다. 상하이방은 장쩌민 주석 집권기에 등장한 상하이 출신의 권력층을 뜻한다. 공청단은 공산주의 청년단의 줄임말로, 중국 공산당의 인재 양성소 역할을 하는 청년조직으로, 후진타오 주석 집권 이후 요직에 대거 진출한 비공식 계파다.

그림 1990년대와 2010년대 상하이 도시 전경



자료 Business Insider, Heres the shanghai 1990 vs 2010 picture that everyone is talking about today, 2011.1.20

거쳐 1989년 마침내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취임했다. 이로써 상하이방이 중앙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장쩌민은 공산당이 선진 생산력(자본가), 선진문화 발전(지식인), 광대한 인민(노동자·인민)의 근본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3개 대표론’을 주장하면서 당의 권력 기반을 자본가 계급으로까지 넓혔다. 이는 개혁·개방에 따라 사회 주요세력으로 성장한 자본가와 지식인을 포용해야 하는 현실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 한편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중국 IT산업 발전의 토대를 쌓았다. 개혁·개방 정책을 통한 발전전략의 일환으로써 덩샤오핑이 설계했던 선전(深圳) 중심의 주강삼각주 지역 개발이 상하이 중심의 장강삼각주 지역으로 확장된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1990년대 중국의 발전을 이끈 장강삼각주 지역 발전전략은, 정확히 표현하면 ‘푸둥신구(浦東新區)’ 발전전략이다. 푸둥은 상하이시를 남북으로 가르는 황푸강(黃浦江)의 동쪽에 있는 지역으로, 황푸강 서쪽의 푸시(浦西) 지역과 대비되는 명칭이다. 522평방킬로미터의 광활한 갈대밭과 논밭지역을 개발, 중국의 금융·상업·무역 및 과학기술의 핵심지역으로 만든다는 대규모적 구상 아래 푸둥을 머리로 하여 11개 장강 지역(9개성과 2개 직할시)의 발전을 유도하는 이른바 ‘용머리(龍頭) 전략’<sup>2</sup>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면적 면에서 장강 지역이 차지하는 규모는 중국 전체의 18%에 불과하지만 인구 36%, GDP 37%에 달하는, 명실공히 중국 최대 경제 네트워크 지역으로 성장하였다.

2007년 3월, 시진핑은 상하이방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상하이시 당서기로 화려하게 등장했다. 재임기간은 7개월에 불과했으나 이를 기반으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상무위원, 국가부주석으로 승진하여 차기 총서기 후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

## 2

‘용머리’란 단어의 의미는 용의 머리에 자극을 줌으로써 꼬리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 즉 상하이의 발전을 통해 장강 상중류 지역인 사천성 등 9개성 및 중경(重慶) 직할시의 발전을 유도하려는 전략이다.

고, 2012년 마침내 국가주석의 자리에 오름으로써 시진핑의 시대를 전개했다. 시진핑 정부의 핵심정책은, 첫째 도시화를 제고를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신형도시화 계획’, 둘째 생산경제에서 소비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보완하기 위한 금융경제의 활성화, 셋째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국유기업 개혁, 넷째 민간부문과 시장의 힘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쌍창경제(雙創經濟)<sup>3</sup> 그리고 정치외교·경제·문화·혁신·지역발전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강력하게 추진하는 일대일로 정책(一帶一路,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의 재현)<sup>4</sup> 등이다.

그 가운데 일대일로 정책은 연해(沿海)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서부 지역을 거점지역으로 삼고 있다. 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배후의 경제지원 기지가 요구되는데, 베이징 중심의 경진기(京津冀) 프로젝트<sup>5</sup>와 상하이 중심의 창장경제벨트 프로젝트가 그러한 배경을 지닌다. 2014년 상하이를 시찰한 시진핑은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로벌혁신센터’라는 목표를 제시했고, 2015년 5월 상하이시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했다.<sup>6</sup> 이렇듯 장쩌민과 시진핑은 모두 상하이라는 도시를 적극 활용한 정책을 펼쳤다. 즉 장쩌민이 상하이 푸둥신구 개발전략으로 중국 경제성장을 추동하였다면, 시진핑은 상하이의 혁신 역할을 극대화한 국가발전 정책을 시행 중이다.

## 02 상하이 용머리 전략 2.0과 창장경제벨트 프로젝트

장쩌민의 상하이 푸둥신구 개발전략이 ‘상하이 용머리 전략 1.0’이었다면 창장경제벨트 프로젝트는 ‘상하이 용머리 전략 2.0’이라 할 수 있다. 창장경제벨트 프로젝트의 정확한 명칭은 2014년 9월에 발표된 ‘창장경제벨트 발전지도의견(长江经济带发展指导意见)’과 ‘창장경제벨트 종합입체교통회랑규획(2014~2020년)(长江经济带综合立体交通走廊)’이다. 창장경제벨트에 해당되는 지역은 ① 귀저우(贵州)성 ② 장쑤(江苏)성 ③ 저장(浙江)성 ④ 안후이(安徽)성 ⑤ 장시(江西)성 ⑥ 후베이(湖北)성 ⑦ 후난(湖南)성 ⑧ 쓰촨(四川)성 ⑨ 윈난(雲南)성 ⑩ 충칭(重庆)시 ⑪ 상하이(上海)시 등 9개성과 2개 직할시이다. 2020년까지의 주요 정책목표 및 추진 내용은 <표1>과 같다.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기초 인프라 건설, 물류, 신형 도시화, 생태환경 보호, 첨단기술, 농업 현대화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대중창업(大眾創業)과 만중창신(萬眾創新), 즉 창신(創新)과 창업(創業)을 촉진하는 경제정책

**4**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를 뜻하는 신실크로드

**5** 중국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지저우(冀州)(허베이성의 옛 이름)를 묶은 초거대 도시 육성 프로젝트. 중국의 수도권을 의미하며, 이 지역의 면적은 21만 6,000km<sup>2</sup>, 인구는 1억 1,000만 명에 이른다. 2015년 4월 ‘징진지 협동발전계획 요강’을 통과시키면서 향후 6년 동안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해 42조 위안(7,420조 원)이 투입될 예정

**6** ‘中共上海市委上海市人民政府关于加快建设具有全球影响力的科技创新中心的意见’

그림2 창장경제벨트



자료 (좌) 김수한·유다영, 2015. 중국 '전국유통핵심도시배치계획'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INChinaBrief vol.296, 2015.08.03., 인천발전연구원.  
 (우) 글로벌원도우, 중, 4대 지역전략...경제 발전 새동력, 2015.01.22

표1 창장경제벨트, 2020년 도달 목표

구별	전국에서 창장경제벨트 지역의 비중	2014	2017	2020
혁신 능력	공업기업 발명특허 수	44.8%	49%	53%
	신상품 판매수입	51%	54%	59%
	연구개발의 GDP 비중	1.47%	2.1%	2.5%
산업 구조	전략적 신흥산업의 GDP 비중	7%	12%	17%
	서비스업 증가치의 GDP 비중	44%	51%	54%
	경제총량	41.6%	42%	43%
경제 개발	수출산업규모(천억 달러)	10.7	12	15
	주민 평균 소비수준(만 위안)	1.85	2.2	2.7

자료 중국국가발전계획위

표2 창장경제벨트, 2020년 도달 목표를 위한 주요 투자 영역

투자 영역	투자 내용
기초 인프라 건설	수력발전소, 항구, 도로, 교량, 고속철도, 공항, 홍수방지 토목공사, 배수 공사 등
물류	물류단지 건설, 물류정보 시스템 개발 등
신형도시화	주택, 의료, 양로, 오수 처리, 도시쓰레기 처리, 사회서비스업 등
생태환경보호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생태복원, 친환경 농업 등
첨단기술	의료, 교육, 양로 분야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물인터넷, 분자진단, 현대생물공학기술 등
농업현대화	친환경 농업, 농업기계, 농업기술 발전, 농업정보 시스템 개발, 농업법률 컨설팅 등

자료 중국국가발전계획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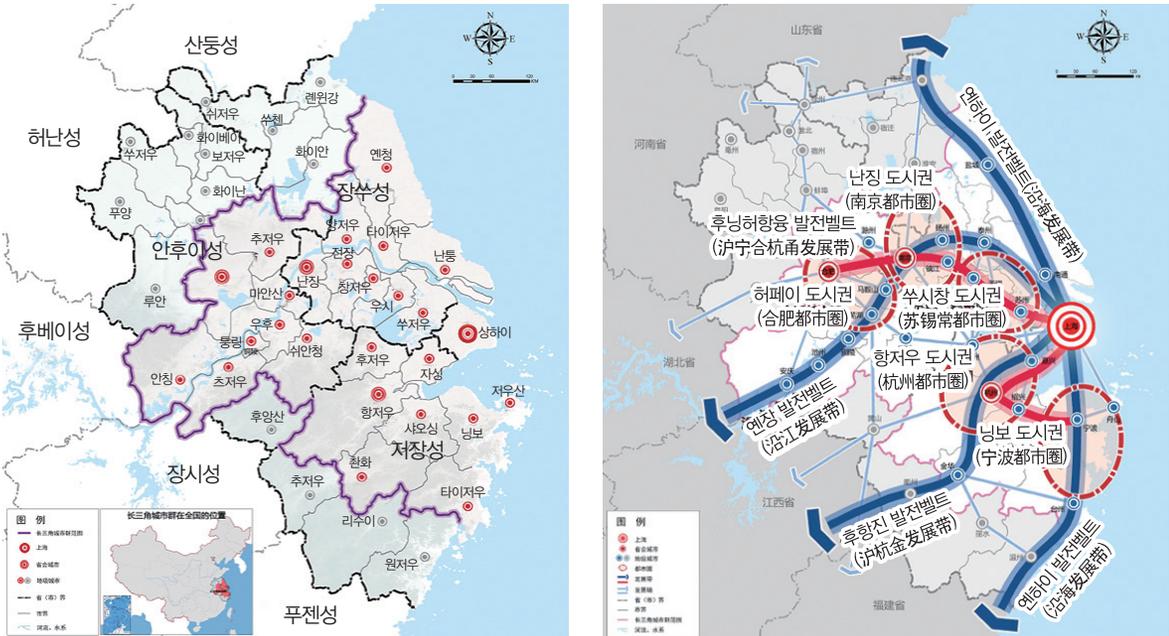
### 03 장강삼각주 도시군 발전규획

장강삼각주 지역의 경제규모는 중국 전체 경제규모의 20%나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5월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이 지역 도시군(群)을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장삼각주 도시군 발전규획(长江三角洲城市群发展规划)’을 통과시켰다.<sup>7</sup> 이러한 정책을 통해 상하이 is 장삼각주 도시 클러스터의 핵심도시로 부상하게 될 것이며, 주변지역에 성장 파급효과를 불러일으켜 장강 유역 전체의 발전을 견인할 전망이다.

이번 ‘발전규획’에서는 외자도입의 폭 확대, 무역의 편리화 및 업그레이드 추진, ‘혁신과 ‘창업’이 활발한 생태계 조성, 현대적 서비스업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 간 통합을 위한 종합교통 시스템 구축 및 인프라 상호연계를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기존의 ‘2성 1도시(장쑤성, 저장성, 상하이)’ 클러스터에 안후이성을 포함함으로써 ‘3성 1도시(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상하이)’로 확장시켰다. 이러한 장삼각주 도시 클러스터의 외연 확대는 세계적 도시 군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담지한 것이다.

**7** 원문은 ‘长江三角洲城市群发展规划’임. 관련 도시는 26개시로 上海市, 江苏省(南京、无锡、常州、苏州、南通、盐城、扬州、镇江、泰州), 浙江省(杭州、宁波、嘉兴、湖州、绍兴、金华、舟山、台州), 安徽省(合肥、芜湖、马鞍山、铜陵、安庆、滁州、池州、宣城) 등임.

**그림3** 장강삼각주 도시군 범위 및 공간패턴 설계도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长江三角洲城市群发展规划, 2016.6

### 장삼각주 도시군 발전규획(长江三角洲城市群发展规划)의 다섯 범주

1. 개혁을 위한 풍부한 자유무역 시험 및 자주혁신 시범구 등의 경험 확대, 금융·토지 등 요소 시장의 통합화 및 공공서비스 구축 강화
2. 개방을 위한 외자 도입 확대, 무역 간소화, 자유무역항 지역 건설 모색
3. 새로운 경제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발전전략 실시, 장비제조, 정보통신, 바이오제약, 자동차, 신소재 등 첨단 제조업 분야의 혁신 강화,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4. 생태보호를 위해 대기·토양·수질오염 방지 및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
5. 발전의 새로운 모델 창조를 위해 상하이를 중심으로 난징, 항저우, 허페이, 수저우·우시·창저우, 닝보 등 도시 군의 도시화 발전 추진, 주요 교통수단 시스템 구축

## 04 상하이, 글로벌혁신센터로 도약하기 위한 여정

2015년 5월 25일, 상하이시 정부는 글로벌혁신센터 성장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첫 단계로 2020년까지 과기(科技)혁신센터의 기본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음 단계로 2030년까지 과기혁신도시의 핵심기능을 수행한다는 전략이다. 분야별 목표는 세계적인 혁신인재 양성, 첨단기술기업 비율 제고, 혁신적이고 창조적이며 창의적인 성과 창출, 과기혁신 기반시설과 서비스 시스템이 완비된 종합적인 개방형 과기혁신도시 건설, 국제적인 혁신네트워크 허브 구축, 원천기술 및 첨단산업기술의 국제적인 원천지 역할 강화 등이다.

이러한 글로벌 혁신 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상하이에서는 ‘전면적인 혁신개혁 시범구’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혁신과 창업에 관련된 세제혜택, 자금지원 등의 금융서비스 모델 혁신, 주식위탁 거래시장, 신형 산업기술연구 개발조직, 외자창업 투자관리의 간소화 등이 시행된다.

현재 상하이에는 자유무역시험구, 창장국가자주혁신시범구가 형성되어 있으며, 곧 실시될 전면적 혁신개혁시범구까지 더해져 3개의 시범구(시험구)가 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상하이시는 밝히고 있다.

## 05 상하이시 정부의 과학기술 혁신전략 : 13차 5개년 계획(2016~2020)

금융위기 이후의 선진국 정책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과학기술의 업그레이드에 역점을 두고 있다. 더 나아가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중국제조 2025’, ‘인터넷+’ 등의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13차 5개년 계획의 각 분야에 적극 반영되어 있다.

### 과학기술

2020년까지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과학기술 혁신 중심의 기본구조를 형성한 뒤, 혁신사업들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구조의 전면적인 업그레이드를 전략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대중창업의 장려, 산·학·연 연계 시스템의 문제 해결, 인재관리의 강화, 과학기술의 선두 진입을 위한 인재와 혁신조직의 육성 등이 주요 목표라 할 수 있다.

시진핑 정부가 강조하는 ‘대중창업, 만중혁신(大衆創業 萬衆創新)’을 위해 상하이시 역시 혁신적 창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와 기업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에 이양하며, 고등교육기관·연구기관·기업 등이 창업과 혁신을 주도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개방 및 공유의 혁신적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창업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중개서비스 기업 및 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금융 및 세수 우대정책도 마련하였다.

특히 창장(张江) 종합국가과학기술센터와 중대혁신기능형 플랫폼의 건설을 서두르고 있고, 국가 중대과학기술 프로젝트, 중요 혁신기지 건설, 중요한 산업핵심 기술 공략 관련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창장(张江) 핵심구와 즈주(紫竹), 양푸(杨浦), 자오허징(漕河泾), 자딩(嘉定), 린상(临港) 등에 과학기술혁신 센터를 건설함으로써 상하이시는 중국 과학기술 혁신기지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 녹색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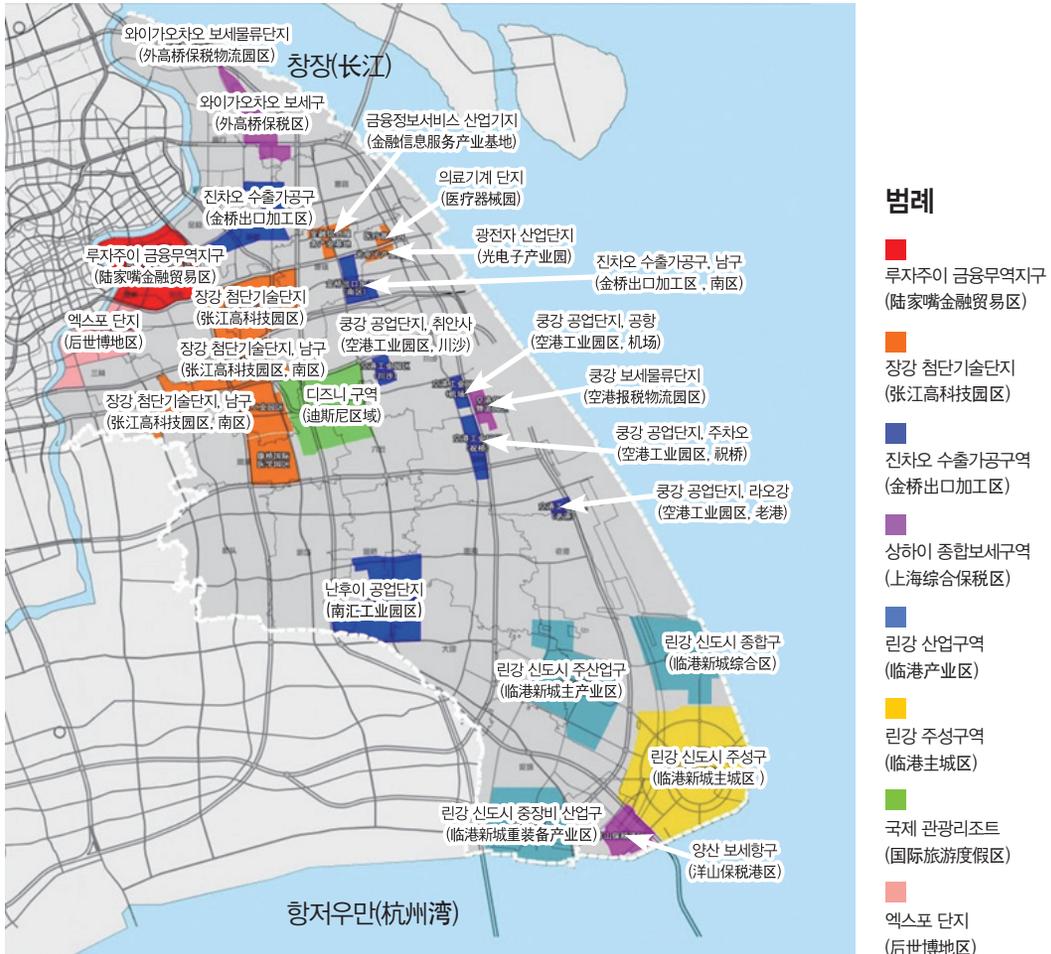
증고속 성장을 유지하고 발전의 수준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 중 하나가 녹색성장 계획으로, 환경 개선 사업과 에너지 자원 사용 효율을 높이고 저탄소 녹색 생산방식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조정 범위의 범위·깊이·강도를 확대하고, 가장 엄격하고 수준 높은 환경보호표준을 적용 및 실행하고,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능력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제도 혁신**

상하이시 정부 직능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고효율 서비스, 높은 투명도, 적은 심사비준과 낮은 요금부과 등 행정 심사비준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사전 관리감독보다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빅데이터의 전략적 수요에

**그림4** 주요 상하이 자유무역 개발구



자료 <http://business.sohu.com/s2013/shzmq/>

맞춰 각급 정부 데이터를 연동하고 데이터 자원의 공유도 추진한다. 또한 국유기업의 개혁발전을 이끌고, 국가자금 유동 플랫폼 기능을 구축하는 한편 국유기업의 개방성과 시장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표3 상하이시 13차 5개년 주요 내용

목표	추진 분야	세부 내용
혁신발전 추진	'4개의 중심' 수준 제고	산업 경쟁력 제고, 상하이 국제경제, 금융, 무역, 항운 건설 강화, '인터넷+'행동계획 실시, 현대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업 시스템 건설 추진
	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	산학연 결합 강화, 혁신인재 육성과 평가 메커니즘 개혁, 우수한 혁신창업 환경 조성
	제도 혁신 추진	정부 직능 개혁
조화로운 발전 추진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추진	중심구역/주변구역 기능별 발전, 홍차오(虹桥)상업구, 상하이 국제관광휴양지, 엑스포단지, 천탄(前滩), 쉬후이빈장(徐汇滨江), 린상(临港) 등 6대 중점구역 개발건설
	도농 간 조화로운 발전	농업발전방식 전환, 도시 현대농업 발전, 도농 간 차이 축소
	도시건설과 관리수준 제고	안전을 우선으로, 과학화, 세밀화, 스마트화 관리 강화, 과학 고등교육,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종합관리 메커니즘 형성, 종합교통시스템 구축
	도시 소프트파워 제고	상하이 문화수준 제고, 문화 및 스포츠 활동 촉진
녹색성장	저효율 생산능력 조정	오염의 원천방지, 저효율 낙후생산능력 지역 제재
	저탄소 순환발전 추진	생활쓰레기, 폐기물 등 감량 및 에너지소비구조 개선
	생태환경 강화	해양자원 절약/이용, 도농 녹화생태건설 추진, 시민들의 휴식 공간 확대 제공
개방형 경제 시스템 구축	자유무역 시범구 건설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에 대한 공평경쟁, 서비스업 대외개방 확대, 위안화 사용 확대
	개방형 경제발전 수준 제고	외자연구개발센터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연구개발센터와 개방형 혁신 플랫폼 업그레이드
	장강삼각주 발전, 일대일로 건설 참여	상하이의 시범 주도적 역할 발휘, 세계와의 연동 네트워크 구축
	업종별 지원/합작교류 업무 집중	상하이시와 티벳, 신장, 윈난 등 낙후지역 협력,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궤기 등의 국가적 지역발전 전략 참여
공유발전/ 민생보장	교육의 현대화	소득수준별, 도농 간, 지역 학교 간 격차 축소,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취업의 질적 발전	창업 진입문턱 낮춤, 평상직업기능 육성제도 시행, 장애인 및 빈곤층의 안정적 취업 지원
	합리적 수입 분배 시스템 구축/시민 건강수준 제고	주민소득 안정화, 의약제도 개혁, 두 아이 출산 정책 실행

자료 상하이시 13.5개년 계획건의

## 06 전략적 신흥산업을 육성하는 상하이시

시진핑 정부의 국가정책인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은 신에너지, 정보기술, 첨단 장비 제조, 바이오, 신소재, 친환경/에너지절약, 신에너지 자동차(전기차) 분야의 집중 투자 및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상하이시 역시 전략적 신흥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4개의 상하이(건강 상하이, 생태 상하이, 우수 상하이, 디지털 상하이)' 정책을 마련하여 분야별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안정적 성장, 구조조정, 성장방식의 전환을 진행한 결과 경제적으로는 서비스 산업 주도의 경제운영과 효과가 확실히 나타났으며,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과학기술 혁신센터 건설의 정당성을 갖추게 되었다.

### 표 4 상하이시의 전략적 신흥산업 정책인 '4개의 상하이' 주요내용

분야	간략 내용
건강한 상하이 ('조기에 '빠르고' '낮은' 원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항바이러스 약물 연구개발</li> <li>2. 중의약 현대화 연구</li> <li>3. 유전자재조합 약물과 바이오치료 연구</li> <li>4. 스마트 바이오 재활치료기 연구개발</li> <li>5. 도시질환, 노년질환의 예방연구</li> <li>6. 식품안전검사와 감독 시스템 연구</li> </ol>
생태 상하이 (신에너지, 도시공공안전, 해양학 기술, 자원환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박막태양전지와 장비</li> <li>2. 도시안전과 방재</li> <li>3. 신형 메가와트급 콤팩트형 해상풍력발전세트</li> <li>4. 해양환경 검측과 자원이용</li> <li>5. 신에너지 자동차</li> <li>6. 에너지 비축과 스마트 전력수송배치 시스템</li> </ol>
우수한 상하이 (스마트 제조, 그린 제조, 서비스형 제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집적회로 핵심장비와 특색생산품과 공예</li> <li>2. 신형디스플레이 기술과 생산품</li> <li>3. 선진소재</li> <li>4. 반도체조명 고효율 칩과 장비</li> <li>5. 스마트형 로봇</li> </ol>
디지털 상하이 (정보기술혁신도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3개의 네트워크 기술연구와 시범응용 (3개 네트워크 : 혁신네트워크시스템, 광대역 유선과 무선융합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대규모 응용과 실험 )</li> <li>2. 차세대 이동통신표준의 칩과 설비, 시스템</li> <li>3. 스마트도시 관리를 향한 사물 간 컴퓨터 응용</li> <li>4. 클라우드 컴퓨팅 핵심설비와 응용시스템</li> </ol>

자료 上海市科學和技術發展“十二五”規劃(2012, 4, 28)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5307/node25455/node25459/u21ai608696.html>

## 07 맺음말 : 한·중 지방정부 간 혁신협력 플랫폼구축 필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20여 년 동안 한국과 중국은 ‘가공무역’을 매개로 상호 윈 윈 게임을 유지해왔다. 한국은 경제성장과 수출을 높이고, 중국 역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 시기 중국은 이른바 ‘세계의 공장’으로 전 세계 제조업의 거점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중국의 환경이 급변하면서 가공 무역을 통한 윈윈 게임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중국 경제가 수출에서 내수시장 위주로, 생산경제에서 소비경제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 ‘세계의 시장’으로 부상했음을 말해주는 현상으로, 한국은 그동안 중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국내 원료와 중간재 등을 가져다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던 방식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사실상 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이면서 ‘세계의 시장’이었다. 다만 우리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세계의 공장’에 더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세계의 시장’을 활용할 치밀한 로드맵이 부재하거나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중국 진출을 위한 전략적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2020년 국가발전 목표인 ‘소강(小康)사회’ 달성을 위한 마지막 주자인 시진핑 정부는 정책을 쏟아낸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고 있다. 신형도시화계획, 중국제조2025, 인터넷플러스, 일대일로, 쌍창 정책(창업과 창신)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sup>8</sup> 이러한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국 수요를 창출할 만한 경쟁력 있는 아이템 발굴이 필요하다.

둘째, 이제 한국과 중국은 본격적인 혁신경쟁과 혁신협력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만 앞섰던 중국 로컬기업들이 가격·품질·마케팅력에 자본력을 겸비한 슈퍼 컴퍼니로 부상하면서 한국기업들은 중국시장은 물론 세계시장에서 힘겨운 혁신역량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런 한편, 연구개발→성과사업화→창업→생산→마케팅→IP→M&A의 혁신가치사슬 전 주기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혁신협력(Innovation Cooperation)’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셋째, 시진핑 정부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지방정부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정책하방이다. 중앙정부의 정책들이 실제로 각 지역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구현되고 있어 지방정부와의 실질적인 협력이 긴요하다. 특히 3,400여만 개의 중국기업들에 대한 정보가 미비한 상황에서 중국기업과의 직접적인 B2B를 추진하기보다는 지방정부 혹은 지방의 공공섹터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B2G2B 모델로의 전환이 효율적일 것이다.

<sup>8</sup> 공자의 사회발전 3단계는 은포(먹는 문제 해결단계)→소강(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단계)→대동(요순정치에 이상사회)로 소강사회는 등 소평이 제시한 중국 국가발전목표임

넷째, 2020년 중국 내수시장이 9,500조 정도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완제품 수출 비율이 30%에 불과한 한국으로서는 중국 내수시장 공략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현재 중국의 1인당 GDP는 8,600달러 수준이지만 매년 1,000달러씩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제 중국인들은 검은고양이, 흰고양이가 아닌 예쁜 고양이, 녹색고양이를 원하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향(向) 제품의 공동개발과 공동 마케팅이 절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신협력이 요구되고 있지만 기업차원에서 단독 추진하기는 어렵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한편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을 피하기에는 한국의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혁신 가치사슬 전 주기를 아우를 수 있는 혁신협력 플랫폼을 중국 내 주요 거점에 구축하기 위한 한·중 지방정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한·중 공동 운영이라는 'Made with China' 전략을 도모해야 한다. 이는 한국 최대의 혁신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명제이기도 하다.

상하이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원가상승 및 토지·환경의 제약과 투자 증가율 하락을 보임으로써 생산요소나 투자요소에 의한 경제성장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현재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상하이시는 과학기술 개방을 선도한다는 목표 아래 과학기술발전 12차 5개년 계획에 매진해왔고, 올해부터는 '혁신'에 방점을 두어 과학기술 R&D 요충지이자 신흥산업과 혁신창업의 기지로 입지를 세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국 혁신의 중심지로 주목되는 상하이에 혁신협력 플랫폼을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효율적인 'Made with China'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서울시에게 주어진 과제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징진지 공동발전 추진 동향, 2014.11.27(재인용)
- 이성호, 중국의 시장 기술 산업의 잠재력평가 및 발전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11.12, p.217
- 중화공상시보(中华工商时报, 2014. 3. 20), 京津冀一体化 : 产业企业如何谋篇布局
- 홍성범 외 2012, 동북아 과학기술협력 패턴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 중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홍성범 외 2014,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 급성장에 따른 대응전략수립, 미래창조과학부
- 홍성범 외 2015,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지역별 진출전략 수립연구, 보건산업진흥원
- 홍성범 외 2015, 중국(중화권) 첨단기술모니터링 및 DB구축사업 : ICT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柳卸林 高太山, 中國區域創新能力報告2012, 科學出版社, pp.43-44
- 上海市人民政府, 上海市科学和技术发展“十二五”规划(2012.04.28)
- 上海市政府, 上海市十三五规划(2015.11.04)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长江三角洲城市群发展规划(2016.6), <http://www.sdpc.gov.cn/zcfb/zcfbtz/201606/W020160603328332453586.pdf>
- 中國統計出版社, 2013 上海統計年鑒
- 상하이시 인민정부 웹사이트 (<http://www.shanghai.gov.cn>)